

연변대학 조선-한국학연구중심 편

정판료,

세계를
가다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봉웅, 최문섭

책임교정: 김 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郑判龙走游世界: 朝鲜文 / 延边大学朝鲜韩国学研究中心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4

ISBN 978-7-5449-0260-1

I. 郑… II. 延… III. 游记-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 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52207号

郑判龙走游世界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787×1092 1/16 插页: 6 印张: 36.25 字数: 533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260-1

(民文)

版次: 2008年5月第1版

2008年5月第1次印刷

印数: 1500册

定价: 6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문화전파와 대화의 걸작

— “정판룡, 세계를 가다”를 읽고서

김병민(연변대학교 교장)

정판룡(鄭判龍, 1931-2001)선생은 20세기 우리 조선족이 낳은 걸출한 교육가이며 문학평론가이며 사회활동가였다. 그는 일찍 1950년대 중반에 세계 명문대학인 모스크바대학에 류학했던 까닭에 서방문화에 대하여 상당히 깊은 인식을 가질수 있었다.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자 그는 서둘러 서방문화에 대한 소개와 전파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자본주의자유화를 고취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조선족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서 변화된 세계를 조선족사회에 알리기 위해 부지런히 세계각국을 돌며 꼼꼼하게 기행문을 써나갔다. 그는 프랑스, 독일, 스웨리에, 미국 등 10여개 나라를 다녀왔고 그 체험을 100여만자에 달하는 기행문으로 남겼다. 그의 기행문은 우리 조선족문학의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

중국, 일본, 조선 등 전반 동방의 근대화는 서방문명의 거대한 충격속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은 일찍 “5.4”신문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와 과학의 가치를 들고 계몽운동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사회가 남긴 문화의식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할 수 없었다. 특히 해방후 거듭되는 “좌”적인 정치운동은 중국과 세계와의 대화를 단절시켰다.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국의 변두리지역에 자리잡은 우리 조선족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헤아린 정판룡선생은 자신의 기행문을 통해 외국문화에 대한 우리 조선족형제들의 인식수준을 높여주려고 하

였다. 정판룡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 조선족의 대다수는 오래동안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아왔다. 하기에 잘살았으면 하는 꿈은 많이 가지고있었지만 시야가 좁고 아는것이 적었다.… 때문에 그들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시급히 근대문명과 관계되는 지식들을 보급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그들의 문화자질을 높여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미적인 감수를 줄수 있는 순 문학작품도 써야 하겠지만 미적인 감수를 주는 동시에 지식도 주고 넓은 시야, 깊은 생각도 가질수 있게 하는 세계기행문 같은 글들도 많이 써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동방과 서방의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있었던 정판룡선생께서 개혁과 개방 초기에 벌써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민족문화발전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있음을 알수 있다.

자고로 외국기행, 이를테면 조선왕조시대 중국에 파견한 사절들이 쓴 《연행록》(燕行录, 중국기행)이나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들이 쓴 《도일록》(渡日录, 일본기행)은 우리 민족이 주변국가를 알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되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홍대용의 《을병연행록》과 같은 작품들은 변혁을 요구하는 그 당시 선진적인 시대사조를 대변함으로써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었다. 또한 근대에 와서 유길준의 《서유견문》과 같은 작품은 서방의 근대문명을 그 당시 상당히 낙후하였던 조선에 소개함으로써 조선에 근대문명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바꾸어말하면 이러한 기행문은 단순히 외국의 풍물을 소개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외국, 즉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자아를 새롭게 인식할수 있는 참조계로 될수 있었다. 정판룡선생의 세계기행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다.

정판룡선생의 기행문들은 공간적으로 스웨리에, 독일, 단마르크, 핀란드, 영국, 미국, 로씨야, 우즈베키스탄, 일본, 한국 등 동서방의 많은 나라와 지역들을 망라하고있다. 그는 민족적,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외국문명의 실상을 상세하게 소개하고있으며 이국문화의 영양소를 민족군체의 혈액에 주입하고있다.

▶▶ 2 정판룡, 세계를 가다

“기행문은 무엇을 어떻게 보고 들었는가 하는 건문을 써야 한다.” 아울러 기행문은 “움직이면서 쓰는 글,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는 글”로서 거기에는 작자의 지(智)적이며 정(情)적이며 의(意)적인 욕망이 녹아들고있다. 정판룡선생의 기행문은 그의 창작의도에 따라 외국의 력사와 문명, 가치관과 문화의식, 민속과 사회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독자들은 그의 기행문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 문명과 만날수 있고 대화를 할수 있으며 우리 민족 문화의식의 변화를 강렬하게 지향할수 있게 된다.

우선, 정판룡선생의 기행문에서는 외국의 력사와 문화에 대해 소상하게 소개함과 아울러 여러 나라 국민들의 행위방식과 사고방식 및 가치관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되고있다. 이를테면 “야자수 설레이는 섬나라”에서는 하와이의 력사로부터 언어, 민속, 교육, 국민성과 가치관 등에 대해 폭넓게 보여주고있다. 여기서 하와이의 건축문화를 두고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중요한 거리의 건물들은 물론이고 또 마노아산비탈에 줄지어 일어난 별장같은 주택건물은 대개가 서양고딕식이 아니면 현대식이다. 현대식이란 우리가 보통 리해하는 그런 현대식이 아니라 현대파 건축예술의 원칙에 의해 세워진 집들인데 그 건축양식이 우리 중국에서 흔히 보는 그런것과는 전혀 다르다. 어떤 건물은 탑처럼 뾰족하게 지은것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석유탱크처럼 둥글게 된것도 있다. 버섯모양을 한 집이 있는가 하면 이집트의 금자탑처럼 삼각형모양을 한것도 있다. 서양사람들은 무엇이나 중복이 되는것을 꺼려하는데 자기들이 입는 옷이거나 사는 집모양도 남의것과 같으면 어떤 의미에서 수치로 생각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하와이의 모든 건물들은 모두 모양이 서로 다르다. 하와이대학에만 해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청사가 여러동 있는데 그 모양은 서로 달랐으며 려관이나 초대소 모양도 같은것이라고는 없었다.”

정판룡선생은 서방문명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눈길을 보냈지만 그 폐해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판을 가했다.

“우리는 호놀룰루의 이 밤거리를 거닐면서 하와이의 밤은
고요하면서도 번잡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징그러운 그런 모순된 곳
이라는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웃음과 눈물, 환락과 비애, 번화
와 타락이 한데 뒤섞여있는 곳이 곧 오늘의 하와이다.”

이러한 대목들은 자칫하면 쉽게 읽고 넘어갈지도 모른다. 그
러나 여기에는 서방의 현대문명 및 그 의식의 특징과 그 리면에
잠재된 제반 모순을 실사구시적으로 소개하려는 작자의 지적인
안목과 아울러 그것을 가장 통속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교육가
의 의도가 보여진다.

본직이 대학교 교수인 정판룡선생은 자기의 기행문에서 교
육, 과학, 문화예술 등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고있다. “노
벨과 노벨상”, “대학의 도시—옥스포드”, “맑스묘를 찾아서”,
“베토벤의 생가를 찾아서”, “서점거리”, “로신과 센다이”, “다
시 찾은 모교”, “하와이대학의 조선문제연구소” 등은 그 대표적
인 작품들이다. 이러한 기행들은 정판룡선생의 새로운 문화의식
과 가치관을 보여주고있다.

정판룡선생은 그의 “맑스묘를 찾아서”에서 맑스의 서거 전후
와 맑스묘의 매력, 맑스묘를 찾아오는 세계각국의 방문객들 등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있다. 특히 그는 맑스에 대한 경모의 심
정을 기행문 전체에 깔고있는데 그것은 맑스묘앞에서의 정서토로
를 통해 충분히 가늠할수 있다. 맑스묘에는 맑스와 그의 가족들
을 기념하는 돌비석이 있고 그우에는 동상이 있다고 하면서 정판
룡선생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철학자들은 여러가지로 세계를 해석하였을뿐이었다. 그러
나 문제는 세계를 변혁하는데 있다.’라는 맑스의 명언이 새겨져
있었다. 그 비석앞에는 누가 가져다놓았는지 월계화가 여러송이
놓여있었다. 우리 역시 가지고 간 꽃 몇송이를 비석앞에 놓고 큰
절을 하였다. 중국의 조선족치고 이곳에 왔다 간 사람이 있을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민족의 습관으로 맑스에게 큰절을 하고싶었
던것이다.”

이는 역사적유물론과 변증법적유물론을 신봉해온 인문학자

정판룡선생의 학구적인 립장과 리념이 민족적인 생활정서속에서 충분히 표현된 장면이라 하겠다. 이러한 장면은 리념의 흔들림속에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에 뜨거운 정신적입김을 불어넣어주고있다.

정판룡선생은 또한 지성인의 예리한 시각으로 랭전체제의 해체와 그것으로 말미암은 인간과 사회의식의 변화를 심각하게 제시하고있다. 이는 “통일된 베를린”, “안개 자욱한 로씨야대지”, “원동기행” 등 기행에서 볼수 있다. 이런 작품들은 그의 학자적인 안목과 사고의 깊이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의 기행이 이론가장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싶다.

“통일된 베를린”에서는 베를린의 역사를 통하여 독일의 근대사를 폭넓게 보여줌과 아울러 분단된 독일이 어떻게 통일되었고 지금은 어떠한 진통을 겪고있는가에 대해 소상히 소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갈피갈피에 정판룡선생 자신의 이해와 분석을 재치있게 곁들이고있어 한결 독자들의 가슴에 쉽사리 와닿는다. 통일독일의 상징물-브란덴부르크문앞에 있는 광장에 이른 정판룡선생은 그 광장에서 있었던 감격적인 경축행사를 감명깊게 회고하면서 독일사람인 백신부의 말을 빌어 통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보여주기도 한다.

“독일사람들은 통일이라는것이 결코 서두른다고 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세상일을 보면 왕왕 떠드는 일이 더 잘 안됩니다.… 우리는 통일하자는 말보다는 동독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또 각종 수단으로 동독인민들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와 공조를 통해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를 제시하면서 정판룡선생은 자연스럽게 조선반도의 통일을 언급하게 된다.

“그의 말은 꽤 철리적이였다. 나는 이 말을 통해 독일민족은 꽤 리성적이며 실제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감정적이며 충동에 놀기를 좋아하는가? 통일은 서둘러서 되는것도 아니고 떠든다고 되는것도 아니다.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꾸준히 통일에 유리한 행동을 해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이 깊이있는 사고와 평가를 곁들이고있기에 정판룡선생의 기행문은 단순한 여행자의 견문기록과는 구별된다. 말하자면 정판룡선생의 기행문에는 우리 민족 구성원들과의 학문적인 대화, 민족운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민족의식에 대한 심각한 반성, 민족의 미래에 대한 탁견이 깃들어있는것이다.

정판룡선생은 소련의 류학생으로서 로씨야의 력사와 문화를 깊이 알고있었고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있었다. “원동기행”에서 작자는 로씨야의 력사적인 변화를 풍부한 체험과 예리한 문화적시각으로 고찰하고있다. 특히 이른바 “8월정변”이후 로씨야에 거대한 사회적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동지역은 그 주변적위치로 말미암아 거의 소외되고있었던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판룡선생은 생동한 비유로 설명한다.

“마치도 로신의 소설 《아Q정전》에 나오는 신헌혁명처럼 청나라를 상징하는 황제 하나를 내쫓고 사람마다 머리태만 잘라버린 그런 형식상의 혁명 같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사람의 정신생활과 문화의식 그리고 가치표준 등에서의 변화는 엄청나게 컸다. 그런 큰 변화는 우선 과거에 대한 히스테리적인 부정과 서방문명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 그리고 혐애한 민족주의사상에서 볼 수 있었다.”

로씨야사회의 력사적인 변화를 거시적시각과 미시적시각으로 얼마나 깊이있고 생동하게 통찰하고 보여주고있는가!

“안개 자욱한 로씨야대지”는 이 기행의 인식적가치를 가장 훌륭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기행문에서 정판룡선생은 격변기 로씨야사회를 심각하게 해부하고있다.

“최근년간 로씨야대지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크고작은 사건들과 리해 못할 변화들은 나로 하여금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였다. 한없이 하강선만 굽고있는 옛 소련의 경제는 언제 다시 올라가겠는지, 끊임없는 정치변동과 민족간의 분열과 분쟁은 언제 가야 계속되겠는지? 어떤 미래가 이 거대한 나라를 기다리고있는지? -이 모든 문제들이 마치 자욱한 안개속에 잠긴것처럼 희미했다.”

이와 같이 정관룡선생은 여행을 떠나기전 자기 자신이 가지고있던 기대를 밝히고나서 비록 여러곳을 방문, 고찰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했으나 “옛 소련은 여전히 안개 자욱한 로씨야대지처럼 미지의 나라로 안겨왔다.”고 개괄하였다. 또한 그는 눈앞의 거창한 력사와 현실을 그림에 있어서 언제나 사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세부적인 묘사에 의거하였다.

이를테면 “소련이 붕괴된지 근 2년이 되는데도 많은 려객기 들에는 소련국기 표식을 그대로 두고있”는 그러한 이률배반적인 사회적특징을 스케치식으로 그리고나서 한 젊은 병사에게 붉은기와 삼색기를 비교하면 어느것이 더 마음에 드는가 하고 물음을 던진다. 이를 통해 로씨야국민의 미묘한 심리상태를 드러낸다.

젊은 병사는 “대답하기 껴 힘든 물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삼색기가 더 마음에 든다고 해야지요, 삼색기가 어째서 더 좋은지 기실 저 역시 잘 모르고있습니다.” 하고 대답한다. 아주 진솔한 대답이다. 이 한마디 대답속에는 격변기에 처한 로씨야국민의 복잡하고 미묘한 의식세계가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모스크바대학의 우샤코브원사에 대한 레방과 그와의 대화를 통해 로씨야의 현실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권위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이 세상에 왕왕 문화없는 사람이 독재자로 되여 인간들을 지배하고있으니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 보면 가장 큰 비극이란 말이요. 소련이 오늘처럼 무맥하게 붕괴된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문화없는 사람이 독재자로 되여 인간들을 지배했기때문이었소.”

우샤코브원사는 또 “간단한 맹장수술을 하고도 얼마간은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이처럼 큰 사회변동을 겪은 나라가 그리 쉽게 건강해질수 있겠는가?”, “하느님은 성공을 주기전에 시련을 먼저 준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우리에게 시련을 먼저 준것 같소.”, “지금은 잠시 혼란과 무정부 상태이지만 얼마간 지나면 질서가 잡힐것ियो. 로씨야사람들은 총적으로 낙관적으로 사고하기를 즐기요.”라고 말한다. 일찍 정관룡선생은 소련사태를

언급하면서 로씨야는 맹장수술을 한것이 아니라 심장수술을 하였다고 비유한바 있다. 사실상 정판룡선생은 우샤코브원사와 거의 같은 문화철학과 사회관을 갖고있었던것이다.

이외에도 이 기행문은 세계각국에 살고있는 조선민족의 이주사와 생활실태 그리고 그들의 문화의식 등을 폭넓고 깊이있게 펼쳐보임으로써 커다란 문화적가치를 가지고있다. 조선민족의 이민사와 그 문화, 이는 가히 정판룡선생 전매특허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는 “스톡홀름의 ‘아리랑식당’”, “스웨리에의 조선인 학자 조승복교수”, “하와이의 조선인사회”, “쏘련의 ‘고려인’”, “‘고려인’ 국제학술회의”, “알마아따의 식당”, “무연한 까자흐 초원” 등에서 무한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세계속의 조선민족의 력사와 현실을 선보인다. 그 목적은 중국 조선족들에게 새로운 생활의 참조계를 설정해줌과 아울러 세계적범위에서 조선민족의 운명을 점검해보려는데 있었을것이다. 여기에는 지성인으로서의 투철한 민족적사명감과 문화학자로서의 예리한 안목이 안받침되어있다.

서로 다른 민족과의 문화적대화는 “사실적문화”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묘사적문화”의 차원에서 실현된다고 문화학자들은 말한다. “묘사적문화”차원에서의 대화는 문화적 “오독”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타자의 시각에서 보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상의 “오독”은 오히려 사실상의 혁신일수도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시각을 보충했기때문이며 다른 유리한 지형에서 고찰했기때문이다. 그것을 결코 착오로 보아서는 안된다. 이러한 문화학적명제는 기행문작가의 경우에도 완전히 적용된다. 정판룡선생은 조선족지성인의 시각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소개했다. 따라서 여기에는 세계 각국 문화에 대한 조선족의 시각, 그나름의 분석과 가치평가가 들어있기에 그것은 외국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되는 동시에 문화 자체의 본래 면모를 환원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판룡선생의 기행문은 하나의 문화-문학형상이다. 모든 문화/문학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그의 기행문에서 창조한 형상은 “‘의식형태’적인것과 ‘유토피아’적인것이 혼재되

였”다고 할수 있다. “유토피아”적인 형상은 자국(自國)의 부정적인 현실과 대조되는 이국의 아름다운 현실에 대한 동경을 주도적인 담론으로 하고있다면 “의식형태”적인 형상은 이국의 부패한 현실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국의 현실을 부정하는것을 주도적인 담론으로 삼는다. 중국사회에 대한 현실적변화를 꾀했던 정판룡선생은 외국문화를 다룸에 있어서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따라 “의식형태”적인 형상과 “유토피아”적인 형상을 분별있게 보여줌으로써 “현실모순을 상징적-상상적으로 해결”하고있다. 그러므로 이 기행의 문화적인 가치를 문화적대화에서의 “새로운 창조적발상”이라는 차원에서 평가해야만 그 진가를 정당하게 평가할수 있을것이다. 보편적인 의미에서 보면 기행문은 개인담론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은 발화자의 의도와 특정된 시각 및 의식에 의하여 사회적차원의 주류담론을 이룰수도 있다. 이 기행문은 풍부한 지식성과 심각한 문제의식 및 현실적인 소재 등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구성원들에게 탈자아적인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문화사적이며 문학사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이 기행문집은 청소년들의 필독서로 될것이며 대학교 학생들과 사회인들의 인문학 관련 참고자료로서도 많이 읽혀지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기행문집을 기획한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 연구센터, 여러 잡지들에 산재된 작품들을 알뜰하게 수집정리하고 편집해준 강순화연구원, 정판룡교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안고 장장 60만자에 달하는 원고들을 정성을 고여 타자해준 리은실, 우정옥, 전은주, 김호, 김미란 등 대학원생들의 로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출판자금을 지원해준 정판룡교육기금회와 이 기행문집의 출간을 기꺼이 맡아주신 연변인민출판사 리성권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바이다.

2007년 12월 20일

차 례

스웨리에기행

1. 북경에서 빠리로	1
2. 드골국제공항에서	5
3. 스웨리에의 고속도로	10
4. 밤에 본 스톡홀름	12
5. 스칸센공원	16
6. 왕궁위병교대의식	21
7. 스톡홀름의 “아리랑식당”	25
8. 스웨리에의 조선인학자 조승복교수	29
9. 노벨과 노벨상	36
10. 스웨리에 교육견문 (1)	43
11. 스웨리에 교육견문 (2)	50
12. 스톡홀름의 중문도서관	57
13. 스웨리에 상점견문	61
14. 스웨리에 사회복지시설	70
15. 스웨리에 생활의 이모저모	82
16. 스웨리에의 명절	93
17. 피뻘하븐으로 가는 길	106

단마르크, 핀란드 기행

1. 란그닌 해변가의 조각상	112
-----------------------	-----

2. 안데르쥬거리에서	117
3. 비내리는 헬싱키	121

영국기행

1. 스톡홀름에서 런던으로	131
2. 웨스트민스터거리에서	135
3. 런던탑과 쉐트 폴 대교회당	139
4. 맑스묘를 찾아서	142
5. 런던대학	148
6. 마담 투싸우드 밀랍인형전람관	151
7. 대학의 도시-옥스포드	157
8. 그리니치천문대	161
9. 나리따국제공항	164

독일기행

1. 뮌헨공항	168
2. “맥주절”전문	173
3. 알프스산의 신비한 궁전	179
4. 라인강의 전설	185
5. 쾰른대교회당	190
6. 서부독일의 수도-본	193
7. 베토벤의 생가를 찾아서	196
8. 통일된 베를린	203
9. 독일의 이모저모 (1)	225
10. 독일의 이모저모 (2)	233
11. 독일의 이모저모 (3)	240
12. 바이에른왕국의 옛 서울	249
13. 뮌헨의 조선인	255
14. 관광도시-하이델베르크	261
15. 위쓰성당	266
16. 오펔리엔수도원	268

17. 옥스부르그대학	272
18. 두신부(杜神父)	279
19. 문헌에서 만난 연길아줌마	283

알래스카, 하와이 기행

1. 북극권을 지나 알래스카로	290
2. 하와이의 조선인사회	295
3. 하와이대학의 조선문제연구소	306
4. “알로하” 하와이	314
5. 유서깊은 진주만	325
6. 폴리네시아 문화중심을 찾아서	332

일본기행

1. 도쿄탐	343
2. 국회청사와 황궁	346
3. 긴자의 밤거리	349
4. “지하도쿄”	352
5. “서점거리”	356
6. 일본 한 녀류작가의 집을 찾아서	357
7. 센다이로 가는 길	362
8. 센다이에 있는 조선인학교	366
9. 마쯔시마유람기	372
10. 로신과 센다이	377

로씨야기행

1. 연착된 러객기	385
2. 모스크바의 저녁거리	392
3. 총리가 들었던 방	397
4. 다시 찾은 모교	401
5. 우샤꼬브원사	406
6. 들어가지 못하는 붉은 광장	410

7. 돈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	413
8. “고려인”문제 국제회의	418
9. 소련의 고려인	421
10. “강제이주”가 남긴 상처	425
11. 뜨거운 민족의 정	432
12. 잡다한 끼예브역광장	437
13. 눈에 덮인 끼예브	444
14. 안개 낀 빼체르부르그	449
15. 로씨야의 “신흥부호”들	455

중앙아세아 기행

1. 파슈켄트에서 만난 고려인들	459
2. 아꾸르간의 조선인마을	463
3. 블라지미르 드미트리예위치	467
4. 눈 내리는 비슈게크	472
5. 무연한 까자흐스탄초원	480
6. 알마아따의 식당	485
7. “바자르”순례기	490

원동기행

1. 처음 본 삼색기	498
2. 늦어 떠난 연락선	504
3. 올라지보스토크의 밤	511
4. 중국어학교	517
5. 나호드까의 조선인	526
6. 우쭈리스크	534
7. 발해의 유물	541
8. 원동사회의 이모저모	549

스웨리에기행

1. 북경에서 빠리로

우리는 북경대학 교문앞에 있는 서양료리점에서 푸짐한 저녁을 먹고나서 승용차를 타고 북경국제공항으로 향하였다. 북경에서 빠리로 가는 중국민용비행기가 저녁 8시 50분에 떠나기에 늦어도 7시까지의 공항에 도착해야 하였다.

시내에서 동쪽으로 60여리 떨어진 교외에 자리잡고있는 북경국제공항은 우리 나라에서 현대화시설이 가장 잘된 공항가운데의 하나로서 매일 수천명의 국내외손님들이 경유하는 곳이다.

우리가 공항에서 짐을 부치고 개찰구까지 전송나온 친구들과 작별악수를 나눈것은 저녁 8시가 지난 때였다. 개찰구에서 검표원에게 비행기표를 내보인 우리는 공항대합실로 향했다. 통로에는 공안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우리 나라 공안전사들이 국외로 떠나는 려객들의 신분증인 려권을 일일이 검사하고있었다. 나의 려권을 자세히 보던 한 젊은 공안전사가 나를 보고 길림성 어느곳에서 왔느냐고 불쑥 묻는것이였다. 내가 인차 연길에서 왔노라고 대답하니 그는 조선말로 “그러면 저의 고향분이군요.”라고 하면서 몹시 반가워하였다. 알고보니 그 젊은 전사는 우리 연변사람이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여기서 사업한지 몇해가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처럼 외국으로 멀리 떠나는 고향사람들을 만나기는 참말 힘듭니다.”

나는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조국과 고향을 떠나 수만리 먼 이국땅으로 떠나는 이 자리에서 고향친구를 만난것이 매우 기뻐